

## 조경수 정보와 개발방향

### 머리말

조경수목은 사람들의 생활경관 주변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으로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미적, 기능적, 심리적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조경수목이라 한다.

새로운 21세기에는 자연환경이 현재보다 더욱 열악해지는 관계로 삶의 질 차원에서 조경의 의미가 무한히 커져 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후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량 적인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이제는 질 적인 시대,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름다움, 깨끗한 물과 공기, 새로운 질서 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경수의 생산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경수를 생산하고자 하는 공간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수 생산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다.



박 형 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앞으로 조경수목의 수출입 하는 과정이나 품종의 등록 판매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경수목의 특성과 재배 방법 등을 알고 서로의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야 될 것이다.

## 1. 조경수와 정보화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와 신용과 비전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지도자의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시장개방에 따른 급변하는 국내외 조경수종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자생력을 키울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세계시장 개방이 된다면 품종을 도입할 때는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생조경수에 대한 연구와 품종의 개념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여 계획성있게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며, 21세기를 향한 한국자생수목의 신품종 육성 필요성이 중요함으로 앞으로 세계시장개방에 따른 급변하는 국내외 조경수목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경수 개발이 절실히 요구 된다. 이에 대처하여 나갈때 창의력에 바탕을 둔 지식과 정보사회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특히 조경수목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연구기관, 학교와 서로 공동연구를 함으로서 질적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 2. 새로운 조경수종 개발 방향

### 1) 조경수목의 품종 개념의 도입 및 육종목표

현재조경수목은 교목과 관목으로 구분하여 조경식재 도면에 표기되고 있다. 조경수목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 한수종이라도 품종이 다양하므로 새로운 품종이 나왔을 때, 신품종의 개발과 번식 방법의 연구 및 보급으로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새로운 조경수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조경수목의 질적 향상과 기능적 향상

조경수목은 그 이용목적에 따라 한수종이라도 품종이 다양한 수종을 특정수형에만 국한하여 연상하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의 생각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조경 수목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품종으로 개발과 번식방법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새로운 조경수를 이용함과 동시에 조경수목의 질적인 향상과 기능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질적 향상>

- 수형 : 직립성(Fastigiata), 수양형(Weeping), 왜성형(Dwarf), 포복형(Prostrate), 밀집형(Compact)
- 꽃 : 꽃색, 크기, 모양, 향기.
- 잎 : 단풍색, 잎색, 크기, 결각수.
- 열매 : 열매색, 크기, 형태.
- 줄기 : 줄기색, 무늬.

#### <기능적 향상>

- 내공해성 수종
- 내병충성 수종
- 내염성수종
- 내한성수종
- 생장속도가 빠를것
- 꽃과 열매를 동시에 감상 할수 있는것
- 개엽 시기가 빠르고 낙엽시기가 늦어 잎 지속기간이 긴 수종
- 동물의 먹이로 이용되어 야생동물을 유인 할

## 수 있는 수종

- 향기가 있는 수종 등이 육성되어야 한다.

### 3) 번식방법의 개선

#### — 문제점

현재 조경수목의 번식은 거의 종자를 파종하여 묘목을 생산함으로 나무개체마다 변이가 심하다. 가로수 조성시 수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며, 암수 구별 없이 식재하여 화분가루와 열매의 악취 냄새로 불쾌감을 준다.

#### — 개선책

식재목표에 따라서 통일성유지 및 암수가 구별된 수종을 이용 함으로서 유전형질이 그대로 전해지는 삽목번식, 접목, 조직배양 등의 영양번식을 이용하여 수종을 개발하여야 한다.

#### 〈실생번식〉

- 개체마다 변이가 생긴다
- 수형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
- 수목특성이 개체마다 다르다



#### 〈영양번식〉

- 삽목/녹지삽목
- 아접/절접/녹지접목
- 조직배양



#### 〈새로운 조경수 개발〉

#### — 이식 방법의 개선

이식 및 재배 방법의 개선으로 컨테이너 재배(盆栽培) 기술을 도입하여 묘목생산을 시설재배 및 기계 자동화로 대량생산 하여야 한다.

#### ○ 장점

여름철 또는 연중 이식이 가능하고 뿌리 활착율이 높아 뿌리의 훼손없이 원래의 수형을 유지함으로 회복이 쉽고 조기녹화가 가능하여 규격화가 가능하므로 기계화로 출하 상품의 균일성을 확보함으로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다.

#### ○ 단점

컨테이너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생장하므로 노지생산과 달리 시비, 관수, 빛과 같은 생리 문제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함으로 컨테이너 재배에 관한 연구와 실용화가 보다 진척 되어져야 한다.

### 4) 증식 방법

#### — 시설(하우스)양묘

재래식 노지 파종과 나근묘 생산을 지양하고, 하우스 재배를 통하여 생육환경을 조절함으로서 생장촉진, 접목, 삽목의 활착율을 증진 전천후 양묘를 실시하여 하우스를 자동화하여 노동력을 절감하여야 한다.

#### — 컨테이너 재배

컨테이너 재배는 묘목의 생산 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배자들이 기피형상을 보이는데 앞으로 언급한 컨테이너 재배의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하여 활착율과 운반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 — 무성번식에 의한 품종고정

묘목의 유전적 특성, 즉 특수품종의 가치를 인정하여 다양한 품종을 무성번식으로 묘목을 증식시킨다.



### - 향토수종 개발

국제시장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려면 향토수종을 개발하여 한국특산품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특산인 구상나무, 노각나무 수양벚나무, 산딸나무, 히어리 때죽나무, 미선나무 등을 한국특산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 - 양묘기술 개선

증식이 어려운 활엽수는 시기별로 무성번식(삽목, 접목, 조직배양) 및 종자발아촉진 방법으로 증식할수 있어야 되며 새로운 품종개체는 단기간 내에 대량 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 3. 새롭게 개발된 품종의 가격문제

### 1) 정부고시가격

실제 조경수목의 가격 형성은 정부고시 가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고시 수목가격의 물가협회 수목가격 수준으로의 현실화가 요구되어져야 한다.

### 2) 자생수종의 가격과 개발 증가

한국자생수종의 고시가격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이제는 외국수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연도별 가격변동추이를 지켜봤을 때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그 원인은 일정한 원칙이 없이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 3) 새롭게 개발된 조경수의 가격책정

새롭게 개발된 조경수는 조달청 고시가격이 품종별로 실생묘와 다른 가격의 책정이 필요하며, 새롭게 개발된 조경수는 실생묘와 비교하여 삽목번식에 의한 삽목묘와 접목번식에 의한 접목묘는 차등화가 필요함으로

새롭게 개발된 조경수는 기존의 가격 단가와는

차이를 두어 고단가로 책정하여 조경수목 생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맺음말

이제 우리나라로 수출입 개방에 따른 세계시장에 대비하여 품종보호제도의 강화로 보다 경쟁력 있는 한국산 자생수종 신품종을 생산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용이하고 효과가 높은 재배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수형이 우수한 조경수를 대량 생산 되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수목의 신품종 개발 방향을 '품종' 개념의 도입과 기능적 및 미적인 신품종 육성목표를 설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생수종을 이용한 이식 및 재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서 한 수종이라도 품종이 다양하므로 이에 관한 새로운 조경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수종을 특정수형에만 국한하여 연상하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수목 품종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품종 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 생산업자간과 설계회사 및 시공업자 그리고 연구기관과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